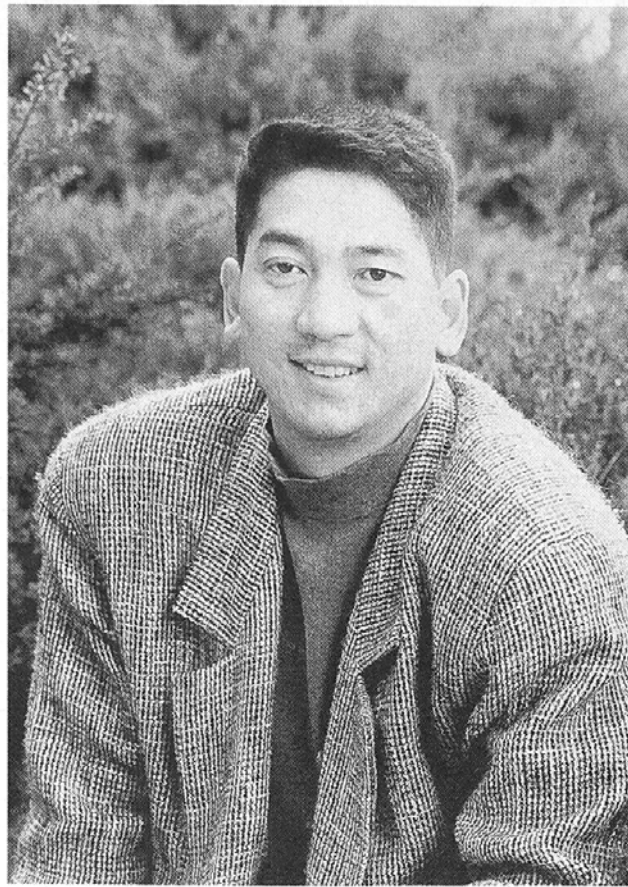


“기록 집착 놓을때 無心타법”

산문박의 禪

프로야구 OB선수 김형석 씨



경기도 이천의 OB베어스 야구장을 달리는 ‘몬곰’ 김형석씨의 눈빛과 얼굴은 유난히 밝고 있다. 초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땀을 뻘뻘 흘리며 야구 배트를 휘두르는 김형석씨는 누가봐도 야구를 하기위해 태어난 사람 같다.

“작년 OB구단 선수들의 ‘팀이탈사태’로 팬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이런 데이상 어떠한 것에 집착하여 연연할 일도 조금할 일도 없습니다. 그저 야구에만 정진할 생각입니다.”

김동화박사의 손주

프로야구 12년째인 김형석씨는 OB야구단에서 3,45번의 타석을 차지하고 있는 팀의 간판타자 프로야구 최고 출장기록(622번)과 최다 안타기록(5년연속 120안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항상 흐트러짐없이 뛰는 선수이다.

“할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제힘의 원동력은 할아버지입니다.”

김형석씨의 할아버지는 불교학자 뇌허 김동화박사이다. 막내며서인지 특히

“저만큼 훈련 안하는 선수도 있나요?”라고 반문하지만 그는 배트를 휘두르며 편안한 마음의 경지로 들어가 야구를 한다. 그래서 그의 타법은 일명 ‘무심타법’으로 통한다.

그는 지난해 선수단 이탈사태로 연속경기 출장기록과 시즌 최다 안타기록을 한꺼번에 잃었다. 이로써 한국의 ‘무계리(마구최다 출전선수)’란 칭호도 이전 더이상 그의 몫이 아니게 됐다.

정작 그러한 기록은 그의 정진을 막는 마였다. 몸이 피로해도 연속출장 기

때때문에 실 수가 없었고 팀을 위해 희생타작전을 써야할 때도 머릿속에만도는 안타수자에 집착해야 했다. 동료들 보기도 민망했다.

“모두 버려야지. 집착을 끊어야지 하면서도 그달리는 욕망은 마음대로 되질 않았습다.”

반면하면 번민할수록 빨려드는 자신을 감출 수가 없었다고 한다.

지난해 OB의 고비였던 팀 이탈사태와중에서 ‘기록을 이어가야 한다’는 선·후배 동료들의 아낌없는 충고가 있었지만 그는 모든 것을 놓아버렸다. ‘기록이 뭐 대수냐며 선수단 집단이탈에 타자최고 선배로 투수최고참 박철순선수와 뜻을 함께 했었다. 그러한 선택은 자신만 생각하며 독살이로 살아가는 가르침의 실천을 보인 것이기도 했다.

연병형상에도 먼저 사인을 한 백지

마음 흠어지면 슬럼프 ‘침없는 연습으로 극복’ 선수단 ‘도반의식’ 갖고 한마음... 올 우승차지

조부의 따뜻한 사랑을 받았다는 그는 국민학교 3학년때 시작한 야구선수의 길도 바로 조부의 반대로 어려움이 컸다.

“조금하다 그만두리라 생각했습다. 학교에 갔다오면 영어나 한문을 가르쳐 주셨지요.”

할아버지는 야구에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모습만 보신채 돌아가셨지만 그가 야구로 빛을 보게된 것은 중앙대 4년 재학시절 국가대표에 발탁되면서 부터다. 그는 LA올림픽에도 참가했다. “첫 타석에 들어서는데 할아버지 생각에 눈물이 났다”고 그때를 회고한다. 그래서 시즌중에도 항상 할아버지 묘소를 찾아 의지를 다진다고 한다. 독실한 불자답게 원만한 가정과 자상한 인품으로 프로선수들 중에서도 ‘우등생’이라는 평판을 듣고 있다.

“야구는 참선처럼 정신이 맑고 고요해야 하는 운동입니다. 마음이 흠어지

위임장을 구단에 내밀었다. 물론 프로 야구계에 반항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단지 자신의 마음을 잡고 ‘나’를 이기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었다는 것. 때문에 그는 사태가 원만히 해결된 뒤 선수들의 마음을 바로잡는데도 슬스수범했다.

연속 출장기록 보유

“OB는 특별하게 잘하는 타자라든가 투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우승까지 하게된 것은 마음이 하나됐기 때문입다.”

선배와 후배라는 개념을 떠나 항상 서로 고민과 기쁨을 나누며 도반처럼 생활하여 화합을 증시했다는 점이 우승을 낚아챈 비결이라는 것이다.

승부의 세계는 참 묘하다. 흔히 강하면 이긴다고 하지만 자주 지면 상대방에 ‘호구’가 되어 순식간에 팀이 허물

어지는 냉엄한 세계이다.

“골짜기 OB라는 칭호를 받으면서도 전지훈련가서 훈련모습의 스케치보다는 어떤 정신자세로 훈련하는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 33세. 외국에서는 한참 젊 나이지만 국내 프로계에서는 적지않은 나이이다. 그래서 원로취급을 받기도 한다.

“이제는 기록이나 타이틀에 집착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항상 ‘매 순간이 마지막’이라는 화두를 꼭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마음 새뜻으로 시작하는 김형석은 어떤 모습으로 운동장에 설까. 그는 두 주먹을 불끈쥐고 젊은 선수들이 달리고 있는 야구장으로 성급히 들어가는 운동장을 한바퀴 빙 돌았다.

김원우 기자

고, 무제는 크게 실망하여 보리달마를 극외로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제자는 이 말을 알 수가 없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6조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무제는 공덕을 얻지 못했다. 보리달마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 무제는 사된 도에 집착하여 바른 법을 몰랐던 것이다.”

자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무제는 공덕이 없습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절을 짓고 보시를 행하고 공양을 베푸는 것은 단지 내생의 복을 구하는 것이다. 공덕은 법신으로 복전(福田)이 아니다. 법의 본성 속에 공덕이 있다. 자신의 본성을 보는



심화·이기선

“공덕 못쌓고 재물만 쌓다니”

나는 당신의 범명을 모르니 태우거사(泰愚居士)라 부르겠습니다. 당신이 통자의 자리에 오를 때 참으로 기쁘소. 왜냐하면 육조 혜능스님과 같은 성체를 가졌고 환경이 육조와 같았을 것이 몇가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노행자(盧行者)가 어렸을 때 나무장사를 하면서 어머니를 봉양하던 것이 어찌던 태우거사와 흡사한 생활이 아니었던가요. 그래서 노행자와 당신이 등치되는 마음으로 대하셨소. 먼 거리에 있으면서 참으로 즐거운 나날이었소. 노행자는 ‘머루를 바 없이 마음을 내어라’라는 금강경 계송에서 마음이 광명처럼 밝아졌고 깨침의 여래가 충만하였소. 이처럼 태우거사도 깃바위 아래서 얼마나 치성과 기도를 올렸소. 그 공덕이 하늘에 닿고 하늘에 넘쳐 위대한 영광을 수용하게 되지 아니하였소. 수용은 큰 공덕이 화려한 것이야 그 공덕을 바르게 회향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요.

그런데 “盧거사! 노행자를 돌아 보시오” 이 무슨 칭찬벽적인가요. 정말 아둔한 일이지요. 무지한 행자가 아닌 지요. 우리 한번 불자의 가슴으로 들어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자사 위계와 육조의 문답을 살펴서 당신과 비교하려 하니 용서하십시오.

오신 중국의 초조 보리달마의 가르침이 근본이 아닙니까?”

“제자는 보리달마께서 양무제와 대화하실 때 무제가 묻기를, ‘나는 평생 절을 짓고 보시를 하고 공양을 베풀었는데 공덕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묻자 보리달마께서 대답하시기를, ‘무공덕(無功德)’이라 하셨습니다.

자사가 절하고 물었다.

“제자는 어떤 스님들과 신도들이 아미타불을 외며 서방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라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제자의 의심을 풀어 주십시오.”

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사여, 설명할테니 잘 들으라. 세존께서 사위성에서 천벽적인가요. 정말 아둔한 일이지요. 무지한 행자가 아닌 지요. 우리 한번 불자의 가슴으로 들어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자사 위계와 육조의 문답을 살펴서 당신과 비교하려 하니 용서하십시오.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51

대우(大愚)

“자사여, 설명할테니 잘 들으라. 세존께서 사위성에서 천벽적인가요. 정말 아둔한 일이지요. 무지한 행자가 아닌 지요. 우리 한번 불자의 가슴으로 들어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자사 위계와 육조의 문답을 살펴서 당신과 비교하려 하니 용서하십시오.

“모든 병은 다 고칠 수 있다. 병이 있으면 그 약도 주변에 반드시 있다. 병은 자연의 힘을 빌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으로 고치는 것이 좋다. 우리 한국인의 체질에 걸맞는 토종 동식물의 약성을 이용하여 정복하는 것이 신도불이전강이다. -저자의 서문 중에서-

의술의 신, 仁山 김일훈 선생이 남긴 건강장수법. 난치병·불치병 휘어잡는 책

김운세의 신도불이전강

김운세의 신도불이전강 / 김운세 지음 / 신국판 264면 / 경제원 펴냄 / 값 6,000원

신도불이전강의 비조 仁山 김일훈

이 병된 저 병된 마름다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선 이들에게 생명의 빛을 던져준 의인이 있었다. 신의(神醫)仁山 김일훈(1909~1992). 선생은 생전에 그의 인술로 죽음의 구덕에서 목숨을 건진 사람들에 의해 그렇게 불리었다. 타고난 의학 천재성으로 어린 시절부터 말기치 않음 구묘의 신화를 남겼던.

인산 선생은 일찍이 「신약(神藥)」이라는 불멸의 대저술을 통해 현대병자의 싸움을 선포하였다. 이 책이 출간되자 선생이 기거하던 삼봉산 초막에는 죽음의 그림자를 면 이들이 수도없이 몰려들어 마치 난치병 환자들의 종착역을 방불케 했고, 이때 병을 고친 이들의 수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이제 선생은 가고 없지만 그가 남긴 의문은 난치병 불치병 정복의 한줄기 빛이 되고 있다. 「김운세의 신도불이전강」은 선생의 차남이 그의 의문을 알기 쉽게 풀이한 책이다.

신도불이전강에 나온 14가지 건강요법

1. 원기회복 암치료 神方 마늘요법
2. 갖은 중독 풀어주는 영태요법
3. 화독(火毒) 다스리는 오이요법
4. 당뇨병 다스리는 쥐는이콩요법
5. 락을 다졌을 때 총화요법
6. 간질병 다스리는 다슬기요법
7. 호흡기병 神方 호두기름요법
8. 폐 기관지병 치료하는 토종무요법
9. 냉병 다스리는 생강감초요법
10. 체내 독성 해독하는 돼지요법
11. 난치병 치료 神方 유황오리요법
12. 자연치유력 높이는 신약김치요법
13. 난치병 최후의 처방 인산복통요법
14. 갖은 질병 예방 치료하는 죽염요법

필자 김운세

인산 김일훈 선생의 차남으로, 선생으로부터 의문을 전수받았으며 그 맥을 잇고 있다. 토종식물치사인 인산기를 살림하여 선생의 발원품인 죽염을 비롯, 각종 토종식물을 생산하고 있다. 「의약외전」 「사시초추」 등의 건강장서들을 발행하였으며 지금은 발간 「신도불이전강」의 발행인으로 있다. 「동시일전」, 「병 주는 법 마추는 법」, 「신의 김일훈」, 「죽염요법」 등의 책을 집필하였다. 「신도불이전강」의 보급을 위해 인산의학재단 설립을 준비중이다.

공해독으로부터 내몸 지키는 책

날이 갈수록 현대민간의 병마는 더욱 기승을 부리는 데도 사람들은 의도기전에만 몸을 내맡긴 채 건강에 관한 의무를 포기하고 있다. 의도사업이 때로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건강을 무조건 돈으로만 때우려는 이 답답한 세상에 속시원한 처방을 제시한 책.

“모든 병은 다 고칠 수 있다. 병이 있으면 그 약도 주변에 반드시 있다. 병은 자연의 힘을 빌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으로 고치는 것이 좋다. 우리 한국인의 체질에 걸맞는 토종 동식물의 약성을 이용하여 정복하는 것이 신도불이전강이다. -저자의 서문 중에서-

필자 김운세선생은 필자 「신도불이전강」도 발행합니다. 정기구독 하시면 언제든지 건강상담도 하실 수 있습니다.

11월호 주요기사

- 담에는 명예 원로가
- 관공영의 처용
- 북해이기

구독연회비:3만원 736-3171

출판기념 건강 강연회 “불치병은 없다” 이 책의 저자 김운세 선생님을 모시고 난치병 불치병을 몰아내고 건강장수하는 방법을 듣습니다. 강연 중 독자님들의 건강상담도 받습니다. 일시/95. 11. 21(화) 오후 7시~9시 · 장소/한국일보대강당 · 문의/736-3171(전화로 참가신청 하십시오) ●참가비는 없습니다.